

문학번역의 결텍스트 리프레이밍: 소설 『허삼관매혈기』를 중심으로

이 지 영
(한국외대)

1. 서론

지금까지 번역학 연구는 언어적 변이와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의 패러다임을 넘어 이데올로기, 권력, 번역행위, 번역가 등 사회학적 개념에까지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번역을 둘러싼 논제와 개념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왔다. 하지만 번역학의 외연이 부단히 확장되어 왔음에도 연구방식이 여전히 번역된 텍스트에 집중되고 텍스트적 개입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여 번역학의 연구중심은 번역 텍스트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다(Tymoczko 2007; Boéri 2008; Kung 2013).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번역학 내에서 풍성해진 문학작품의 결텍스트 연구는 상술한 연구방식에서 탈피하여 번역된 텍스트를 둘러싼 결텍스트(paratext)를 대상으로 한 연구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는 문학번역의 경우 번역을 통한 문

학작품의 해석과 수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책 본문을 보충설명해주고 작품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시하는 결텍스트의 유용성이란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¹⁾ 제라르 주네트(Genette 1997: 14)에 따르면 서문, 헌사, 역사후기, 작품해설, 작품평론 등 “작품의 총체성을 위해 함께 구성된 결텍스트는 작품 해석의 출발점이자 독자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문학실천의 가장 사회화된 공간”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는 결텍스트 연구가 번역을 통한 해당 사회의 작품 수용양상을 우선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유용한 해석의 틀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문학작품이 각기 다른 문화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재구성되는 결텍스트 분석을 통해 문화권에 따른 상이한 작품 해석방식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보다 세밀한 작품해석을 위해 사회학적 시각의 내러티브(narrative)와 프레이밍(framing)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해석이란 개념에 내러티브를 적용하여 이것이 다시 어떻게 리프레이밍되는지 고찰할 것이다. 내러티브 이론은 최근까지도 분석틀로서 활발히 번역학 연구에 적용되면서 번역과 갈등의 논제 및 텍스트나 현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부단히 각인시킨 바 있다(김기영 2013; 김순미 2013; Baker 2006; Boéri 2008; Summers 2013).

분석대상 작품은 중국의 당대문학 작가 위화(余華)의 대표작 『허삼관매혈기(許三觀賣血記)』이며 분석대상 텍스트는 장편소설 『허삼관매혈기』의 원본인 중문본과 한역본 및 영역본에 본문텍스트와 공간적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는 뒷표지 텍스트, 역사후기, 작품해설, 언론서평 등의 결텍스트 요소이다. 이는 문학작품이 번역되면 작품이 이해되는 방식, 즉 작품의 해석방식도 목표문화권과 접촉함에 따라 함께 ‘번역’될 수 있음을 결텍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또한 번역을 통한 문학작품의 수용과정에서 결텍스트라는 제도적 장치의 새로운 역할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1) 지영래·박선희(2010), 한미선(2013), Hou(2013), Kung(2013), Summers(2013) 등의 연구는 원본과 번역본의 결텍스트 사례분석을 통해 결텍스트의 특성과 기능을 논하였다.

2. 분석작품 『허삼관매혈기』 소개

1990년대 중국문학을 대표하면서 선봉파(先鋒派)문학²⁾에서 ‘민간(民間)’³⁾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옥연 2009: 160) 위화의 대표작 『허삼관매혈기』는 비평가의 화려한 찬사와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동시에 이끌어 낸 중국 당대문학⁴⁾의 수작이다. 이후 이 작품은 세계문단의 극찬 속에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며 전세계 20여 개 국에 번역, 출판되었고 위화의 전작 『인생(活着)』과 함께 작가 위화에게 세계적인 인기작가라는 명성까지 안겨다 주었다.

『허삼관매혈기』의 중심서사는 주인공 허삼관(許三觀)을 중심으로 한 가족 수난사이다. 이때 가족수난사는 시기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정착 초기인 1950년대부터 문화대혁명(1966~1976) 이후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화

- 2) 윤영도는 선봉파(先鋒派)가 실험성이 강한 창작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하던 작가 군으로 1980년대 후반 중국당대소설계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한다(『오늘의 문예비평』 67, 2007). 위화가 1980년대에 창작한 작품은 과도한 형식 실험이 주를 이루는 선봉소설로 분류가능하며 1990년대의 장편소설 『인생』과 『허삼관매혈기』는 사실주의로 분류된다. 위화는 그의 80년대 선봉소설에서 주로 피동적이고 무기력한 인물들의 예측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사건과 상황 등을 통해 드러냈다(유경철, 『중국현대문학』 46, 2008: 106).
- 3) 이옥연은 중국문학계의 ‘민간’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첫째, 도시인과 노동자 등 “평범한 사람들의 즉자적 생활공간”이라는 폭넓은 개념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롭게 대두한 사실주의 경향의 창작을 두고 민간현실의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하는 경우이다. 둘째, “반관방담론(anti-official discourse)”으로 규정하는 경우로 민간을 국가의 주류 담론에 저항하거나 그것의 밖에 존재하는 사상적 공간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즉, 문학 속에 표현된 민간은 “국가권력 통제가 상대적으로 박약한 영역”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문학계에서 ‘민간’이란 담론은 선봉파문학과 함께 ‘인민문학’의 역사에 중대한 균열을 가져왔다는 점에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역설한다. “당과 국가의 권위에 대한 숭상, 현대화에 대한 신앙, 이분법과 대단원 식의 결말을 비롯한 교조적 창작 규범의 답습” 등을 주요 특징으로 삼는 ‘인민공화국 국민문학’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민간’이라는 담론은 중국 대륙의 신시기(1978~) 역사와 문학을 민간의 시각 속에서 재검토해 볼 수 있고 작가들에게 새로운 창작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이옥연(2009), 『포스트 사회주의시대의 중국문화』: 148-152).
- 4) 중국현대문학은 5·4운동 전후를 기점으로 1917년부터 1949년까지를, 중국당대문학은 1949년 이후에 출판된 문학을 가리킨다(劉勇 (2015), 『中國現代文學』: 12).

는 이 작품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고단하고 참담한 민중의 삶을 펼쳐놓는다. 생사(生絲)공장에서 운반일을 하는 가난한 노동자 허삼관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생의 고난 앞에서 총 열두 차례의 매혈로 대처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목숨을 이어나간다. 작품의 가족사는 극도의 가난과 정치적 재난 속에서 허삼관이 힘겹게 헤쳐나가는 매혈 여로를 주로 묘사한 것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피를 파는 일’은 이야기의 전체적인 전개과정에서 중심고리가 된다. 긴장한 청년 허삼관이 예순이 되어 더 이상 피를 팔 수 없을 때까지의 삶의 여정은 곧 피를 팔아 살아가는 과정이다. 피를 파는 일이란 당대 중국의 현대사 문맥 속에서 생계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팔아야 하는 가난한 이들의 비장한 생활방식을 드러내준다. 허삼관과 함께 처음으로 피를 팔고 황주와 돼지간볶음을 먹었던 근룡(根龍)이는 결국 피를 파는 일 때문에 뇌일혈로 죽게 되고 작품의 후반부에서 허삼관 역시 큰아들 일락(一樂)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과도하게 피를 팔아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다(심혜영 2003: 369).

허삼관이 중요한 매혈을 하는 세 시기는 중국의 현대사를 대표하는 역사적 세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피를 팔게 된 계기는 모두 자식들을 위해서였다. 우선 1950년대 중반의 사회주의 정착기 무렵 큰아들 일락이 때문에 입원하게 된 대장장이 방씨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1958년 대약진운동 당시 기근으로 먹기 힘들어진 자식들을 먹여살리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문화대혁명 당시 하방된 아들 이락(二樂)이의 생산대장을 대접하고 간염에 걸린 일락이를 치료하기 위해 허삼관은 피를 팔게 된다(윤영도 2007: 156).

여기서 허삼관으로 대표되는 민중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인물들은 거의 관(官)과 연결되어 있다. 먹을 것도 없는 집에 찾아와 거들먹거리는 문혁시기의 생산대장, 매혈자와 병원 사이에서 이(利)를 취하는 혈두(血頭), 그리고 민중의 삶을 간단히 조정하는 국가권력층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공산당원인 관리층이자 쉽사리 대중을 동원해서 국가의 논리를 관철시켜 민중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권력층이다(이옥연 2009: 154).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매혈사는 고통과 슬픔의 무거운 이야기로 흐를 것 같지만 위화는 특유의 해학적 필체로 작품이 감상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그는 또한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를 통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서사를 의뭉스럽고 익살스럽게 묘사하면서 가벼움의 미학까지 선사한다. 특히 대기근으로 50여 일 동안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도 먹기 힘든 상황에서 얼굴이 누렇게 뜬 이들에게 허삼관이 채치 넘치는 말씀씨로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한 접시씩 차려주는 장면과 문화대혁명 시기 그의 아내 허옥란(許玉蘭)이 비판대상이 되어 ‘기녀 허옥란’이란 나무땀말을 목에 걸고 하루종일 거리에 서있어야 했을 때 허삼관이 밥밑에 반찬을 몰래 숨겨놓은 점심을 가져다 먹여주는 장면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선사하는 이 작품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위화의 펜 끝에서 주인공 허삼관은 결코 낙담하지 않고 혹독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묵묵히 살아갈 방도를 모색하는 강인한 생명력의 민중으로 생동감 있게 탄생한다.

3. 이론적 배경

3.1 결텍스트의 기능

결텍스트는 문학작품의 본문텍스트를 둘러싼 제목, 표지, 서문, 역자후기, 작품해설 등 부가설명적인 텍스트를 가리키며 문학작품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 본문텍스트를 확장시키고 본문텍스트가 책의 형태가 되어 세상에서 소비되고 수용될 수 있게 도와준다(Genette 1997: 1). 주네트는 결텍스트의 핵심기능이 “해석의 출발점”에 있다고 하면서 결텍스트는 항상 작가에게 정당성을 부여 받은 작품해설이나 작품평론을 전달하는 주요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결텍스트는 작품의 보다 나은 수용을 위하여 작가와 그 동업자들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리딩방식을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2). 결텍스트는 공간적인 특성에 따라 주변텍스트(peritext)와 후텍스트(epitext)로 구분된다. 주변텍스트가 공간적으로 같은 책 속에서 본문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편집과 관련된 요소들, 즉, 책제목, 헌사, 서문, 각주, 역자후기, 작품해설 등을 가리킨다면 후텍스트는 책 자체로부터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요소들, 예를 들어 기타 잡지에 실린 저자와의 인터뷰나 작품평론 등을 말한다(지영래·박선희 2010: 250).

같은 맥락에서 거샤오친(葛校琴 2015: 97)은 “본문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결텍스트는 작품의 서사세계와 독자의 현실세계가 서로 만나는 접합점”이며 독자들이 작품의 서사세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텍스트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즉, 독자들의 작품이해를 돕는 작품의 배경지식이나 저자의 집필의도 및 본문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소개하여 독자들이 최대한 가까이 작품의 의도 및 의미에 다가갈 수 있도록 본문텍스트를 보완하는 것이 결텍스트의 핵심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작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의되고 논의된 결텍스트의 개념과 기능은 번역학자들의 비판적 논의를 거쳐 번역본의 본질적 특성이 고려된 후 번역학에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타히르-구르카글리는 번역학자들이 번역을 저자의 ‘원저자성(authorship)’이 확장되는 파생적 과정으로 간주하는 주네트의 모델을 비판해왔음을 지적하면서 번역본을 원작의 결텍스트로 분류하는 그의 모델을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텍스트는 새로운 담론적 맥락에 진입하면 그 의미가 변하는 동적이고 대화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주네트의 모델은 문학텍스트를 정적이고 고정적인 특성으로만 규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번역본을 원본의 ‘원저자성’이나 ‘고유성(originality)’을 확장시키는, 원본에서 파생된 종속물로 바라보는 시각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Tahir-Gurcaglar 2002: 46).

같은 맥락에서 한미선(2013)도 주네트의 원작에 근거한 결텍스트 개념은 원본텍스트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를 번역본으로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그 근거로 번역된 텍스트가 목표문화 내에서 하나의 독립된 텍스트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수행하고 번역본의 결텍스트도 책의 총체성을 위해 한 권의 책을 구성하는 요소인 점을 제시했다.

서머스(Summers 2013) 또한 주네트의 결텍스트 개념이 원저자에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원본의 내용과 저자의 의도 확립에 방점을 두는, 원본 중심의 결텍스트의 주요 기능은 번역본의 결텍스트를 대상으로 할 경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주네트가 주조한 결텍스트 요소들이 본문텍스트가 주변 담론들과 상호 접촉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접하게 해주는, 소중한 제도적 장치이긴 해도 번역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원저자 권위의 불안정성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적, 시공간적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목표문화권에서는 원본의 서사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의 기대 지평에 부응하기 위해 원본의 ‘타자성’과 협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므로 원작의 의미나 저자의 의도를 구현하는 원본 중심의 결텍스트 기능이 번역본의 경우,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기한 관점을 출발점으로 삼는 번역본의 결텍스트 연구는 꾸준히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코발라(Kovala 1996)는 문학작품 번역본의 결텍스트 활용 방식을 고찰한 바 있다. 그는 1890년부터 1939년 사이 핀란드에서 출판된 영미문학작품의 핀란드어번역본의 결텍스트를 분석한 이후 이 결텍스트 요소들이 당시 핀란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폐쇄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가 말하는 “이데올로기적 폐쇄성”이란 이른바 결텍스트 요소들이 독자를 교육시키려는 종교적 교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가리킨 것이다. 번역본의 결텍스트 요소는 이렇게 독자를 ‘특정 독서경험’으로 유도하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타히르-구르카글라(2002)도 1940년대 터키 정부 산하의 번역국(The Translation Bureau) 주도로 출판된 서구문학작품의 터키어번역본 결텍스트 요소를 분석한 후 앞표지와 서문 등에 문화적 근대화(modernization)라는 교육적 목적이 반영되었음을 밝혀냈다.

서머스(2013)는 구(舊)동독 출신의 소설가 크리스타 울프(Christa Wolf)의 ‘원저자성(authorship)’이 미국과 영국에서 출판된 영역본에서 독일의 원본과는 상이하게 구현되는 현상을 번역본의 결텍스트 분석을 통해 논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원저자성’은 텍스트의 해석에 담론적 기능으로 작용하는, 작가의 정체성이다. 서머스는 독문본과 영역본 결텍스트 요소의 지배적 내러티브를 상호 비교한 이후 문학번역에 있어서 동일 작가의 원저자성이 문화권마다 상이하게 구현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번역본의 결텍스트 요소가 작가의 ‘원저자성’ 연구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상기한 결텍스트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원작 중심의 결텍스트의 주요 기능은 원작 및 작가의 의도를 독자들에게 ‘제대로’ 구현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번역본의 결텍스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반기를 들고 번역본 및 번역본 결텍스트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번역 수행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이나 작가의 정체성에 대한 해석을 번역본의 결텍스트 요소를 통해

고찰해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번역본의 결텍스트는 번역텍스트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 여러 번역현상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바탕 위에서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문학번역에 있어서 결텍스트의 기능을 새롭게 탐색해보고자 한다.

3.2 내러티브 이론

문학이나 언어학에서 흔히 이야기 혹은 서사로 번역되는 내러티브는 플롯의 구조적 구성에 중점을 두며 사건을 연속된 언어로 기술해서 과거의 경험을 재현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Baker 2006: 8).

이에 반해 사회학에서 내러티브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행위의 방향을 결정짓는 일상적인 이야기이다(Boéri 2008: 270). 내러티브는 사회적 현실을 구축하기 위해 작동되는 정신적 도구이며 인간은 내러티브를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한다(Baker 2006: 20). 즉, 내러티브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전하는 모든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베이커(2006)가 정리한 내러티브 가운데 본고에서 적용할 개념은 사회적 내러티브(public narrative)와 메타 내러티브(meta narrative)이다.

사회적 내러티브는 종교단체, 교육기관, 언론, 정부 등 개인보다 규모가 큰 사회단체나 제도기관에 의해 조성되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서구민주주의나 이슬람근본주의 및 성소수자 권리 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에 속한다. 사회에 속한 개인들은 특정 그룹에 의해 제기된 사회적 내러티브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 그룹의 사회적 내러티브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에 부합하지 않을 때 개인들은 종종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33).

사회적 내러티브는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거나 시간이 흐르면 그 이데올로기가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종주의 철폐운동의 수장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테러리스트로 규정되었지만 90년대 들어 세계적인 영웅으로 부상하면서 199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34).

번역의 경우, 목표문화권에서 지배적인 사회적 내러티브를 위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나 터부시되는 특정 표현들이 자기 검열 및 제도적 검열을 통해 생략될 수 있다(36).

메타 내러티브는 특정 시대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시대의 서사’와 같다. 특정 시대의 심오한 가치나 사회적 맥락을 대변하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산업화, 냉전시대, ‘테러와의 전쟁’ 등의 이야기가 이에 속한다. 시공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메타 내러티브는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접하게 되는 이야기들이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Holocaust)는 ‘인류의 비극’이란 내러티브로 부상하여 메타 내러티브의 지위를 획득했다(44).

내러티브는 또한 다음과 같은 내러티브속성(narrativity)을 지닌다.

첫째, 시간성(temporality)이다. 시간성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특정 시공간에 위치하게 된다는 내러티브의 특성을 가리킨다.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사건, 관계, 참여자 등의 요소들은 특정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연속적으로 배치된다(50).

시간성은 내러티브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내러티브는 특정 시공간 속에서 위치되고 해석된다(52).

둘째, 관계성(relationality)이다. 고립된 각각의 사건들은 내러티브 안에서 연결관계를 형성한다. 인간은 특정 내러티브를 수립하지 않고 일련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내러티브를 수립하는 일은 현실과 기억 속에서 개별적인 사건들을 적절한 순서로 선택하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각각의 사건들은 이러한 관계성으로 인해 내러티브의 틀 안에서 구성된다(61).

셋째, 인과적 플롯(causal emploment)이다. 각각의 사건들은 내러티브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 서로 연결된 후 이야기를 구성하고 특정 결과를 도출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논의된다. 이러한 인과적 플롯의 내러티브 속성으로 인해 인간은 사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그것들의 경중을 따져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과적 플롯은 여러 내러티브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성일지 모른다. 인과적 플롯이 일련의 사건들의 원인을 규명해주어 다음에 취할 행동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67).

넷째,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이다. 모든 내러티브는 특정 평가 기준에 따라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한 사건이나 행위자를 선택하거나 제외한

다. 일관된 내러티브를 수립하기 위해 특정 경험요소들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거나 제외시키는 것이다(71).

본고에서는 상기한 내러티브 개념을 문학적 해석으로 이해하여 적용한다. 로젠블랫(Rosenblatt 2008: 236)⁵⁾은 “문학적 해석의 고유한 부분은 예술성을 지녔다고 인정받는 작품의 본질과 특성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문학적 해석은 복잡한 세상과 인간의 내면을 묘사한 작품에서 추상적인 것을 필연적으로 골라내야 하는 작업의 일종으로서 작품의 특성을 구축하기 위해 문학사조 등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작품의 정서 및 본질을 지적하려는 노력이다. 독자나 비평가는 전반적으로 문학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품에 대한 반응을 다듬은 후 질적인 ‘감정’과 함께 작품의 의미를 해석한다(237).

상기한 문학적 해석의 “고유한 부분”은 시간성과 선택적 전유라는 내러티브속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믿게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내러티브는 시간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의미를 그것이 처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획득한다. 시대와 공간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품의 의미를 재현하는 문학적 해석도 이와 그 사고과정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러티브 구성요소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특정 사건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선택적 전유는 작품의 특정 요소를 전경화하거나 후경화시켜서 “작품의 특성을 가려내는” 문학적 해석의 선택적 작업과 유사하다.

3.3 프레이밍 개념

베이커(2006)는 복잡다단한 번역관련 선택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기한 내러티브 이론과 함께 프레이밍 개념을 번역학에 도입하였다.

그는(2009) 여러 사회학자들의 정의를 참고하여 프레임의 개념을 우선 광의적으로 분류했다. 소극적(passive)인 의미로서의 프레임은 무슨 행위가 발생하고

5) 로젠블랫(Louise M. Rosenblatt)은 문학작품의 상호교통이론(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이라는 문학기론을 제창했다. 이는 그간의 낭만주의, 신비평주의 관점이 중시하는 작가나 텍스트 자체보다는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다양한 반응을 비중 있게 보는 이론이다(2008: 1).

있는지와 화자의 발화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참여자의 지각(sense)이다. 이 경우 개인들이 행위를 프레임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므로 해석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active)인 의미로서의 프레임은 사회운동 문헌에서 두루 활용되는 개념으로 이 때 프레임은 “특정 관점을 취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경우 프레임은 “현실 구성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구조적 틀을 세우는 과정”이 된다. 즉,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다른 이들의 해석을 유도하는 기대 구조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는 프레임이 사회운동가들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인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고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사회운동을 더욱 확산시켜야 하는 사회운동가들에게 그들 주장의 “표지(signification)”처럼 활용되는 프레임은 언제나 중요하다. 프레임을 분석하는 사회학자들도 프레임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전략적 과정은 사회운동의 조직화에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역설한 바 있다(Baker 2009: 194).

베이커가 주목한 프레임 개념은 상기한 사회운동계의 적극적 개념이다. 번역가들은 보통 텍스트에 내재된 내러티브에 대한 태도에 따라 여러 번역관련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프레임은 내러티브를 강화시키고 약화시키거나 혹은 중립적 입장을 취해 요약해주는 중요한 전략이 된다. 프레임이 세상을 이해하는 개인적, 사회적 이야기인 내러티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일종의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1997년 홍콩이 중국 대륙에 반환되는 사건을 놓고 대부분의 서방 언론은 “주권 이양(The handover of sovereignty)”라는 프레임을 사용했지만 중국 본토의 언론은 주로 “조국으로의 귀환(The return to the motherland)”이란 프레임으로 대서특필했다. 이는 각 문화권이 홍콩 반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내러티브를 특정 프레임으로 프레임한 사례이다(195).

최근 여성운동가들이 외치는 “임신중단⁶⁾ 합법화”란 프레임 역시 ‘낙태권’에 대한 이들의 내러티브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프레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6) ‘임신중단’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회운동가들이 사용하는 ‘낙태’의 중립적 표현이다(중앙일보 2016. 10. 26).

‘낙태’에 대한 이들 사회운동단체의 사회적(public) 내러티브는 ‘낙태권’은 여성 고유의 권리이므로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들의 최종 구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합법화”가 된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는 또한 결코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재단할 수 없는 수많은 여성들의 실존적 상황이라는 선택적 전유의 내러티브 속성을 내포한다. 이는 ‘낙태’를 생명윤리로 다루려는 종교적 관점의 메타 내러티브와 완전히 배치되는 내러티브이자 프레이밍 전략이다. ‘낙태’를 선과 악이라는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낙태죄’로 인식하는 종교계의 내러티브는 상기한 여성운동가들의 그것과 다르게 리프레이밍될 수 있다.

본고는 상기한 두 가지 내러티브 개념과 사회운동 내에서의 프레이밍 개념을 도입하여 소설 『허삼관매혈기』의 결텍스트 내러티브가 문화권에 따라 각각 어떻게 리프레이밍되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경우 문학적 해석 개념은 로젠블랫이 정리한 대로 작품의 정서와 특성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선택적 작업이 되며 결텍스트 요소의 텍스트에 내재된 주요 내러티브가 작품을 이해하는 해석의 틀로서 적용된다. 또한 각 문화권이 작품을 이해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사회적 내러티브와 메타 내러티브는 결텍스트라는 제도적 장치 안에서 다시 작품에 대한 기대구조를 세우는 “표지판”과 같은 프레임으로 리프레이밍 될 것이다. 이러한 결텍스트 내러티브의 프레이밍 과정 분석은 주로 출판 및 번역관계자들이 언어적 자원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한 해석의 방향을 고찰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4. 『허삼관매혈기』의 결텍스트 분석

본고의 분석대상 텍스트는 소설 『허삼관매혈기』의 중문본, 한역본, 영역본에 공간적으로 함께 구성된 결텍스트 요소들이다. 상기한 세 권의 저서는 다음과 같다. 원본인 중문본은 2012년 중국의 작가출판사(作家出版社)가 중국에서 출간한 개정판이고 한역본은 2014년 푸른숲출판사가 3쇄로 출간한 개정판이며 영역본은 2003년 미국의 앵커북스(Anchor Books)출판사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 출간한 초판이다. 『허삼관매혈기』는 원래 1995년 중국에서 위화의 신작으로 처음 출간되었지만 본고는 이 작품에 대한 비교적 동시대의 해석양상을 보

고자 2010년대에 출간된 중문본과 한역본을 선정하였다. 다만 영역본의 경우, 번역문학이 북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개정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2003년에 출간된 초판을 선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상기한 분석대상 결텍스트가 실린 세 권의 도서 앞표지는 각각 왼쪽에서부터 중문본, 한역본, 영역본 순으로 다음과 같다.

그림 1 소설 허삼관매혈기 중문본, 한역본, 영역본 앞표지



4.1 중문본 결텍스트 내러티브의 프레이밍

분석대상이 되는 중문본 결텍스트 요소는 소논문이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중문본의 가장 많은 편폭을 차지하는 앞표지 및 뒷표지 텍스트와 공간적으로 본문텍스트 뒤에 위치한 해외평론요약 텍스트로 한정한다.

중문본의 앞표지 및 뒷표지 텍스트와 해외평론요약 텍스트는 모두 세계 유수 언론의 짧은 서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외평론요약 텍스트에서는 서구 언론의 극찬으로 가득한 서평이 무려 9페이지나 길게 이어진다. 각각의 짧은 문단의 서평들은 아래의 예시처럼 “위대한 작가”, “최고의 작가”, “세계적 명성”,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소설”, “정교한 구성과 유려한 문장의 소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작가 및 작품을 모두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 물론 중국사회의 무질서하고 혼란스런 양상을 묘사하는 내용들도 존재하지만 무려 9페이지나 달하는 해외평론요약의 서평이 대부분 작품의 특성과 작가의 필력에 대한 호평 일색인 것을 감안해볼 때 이러한 내용들은 호평에 종속된 내용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余華無愧是一位偉大的小說家，他所塑造的人物向世界展示了艱難時期人的尊嚴以及求生的慾望。(法國 尼斯晨報) 7)

위화는 역시 위대한 작가답다. 그가 창조해낸 인물들을 고난의 시기를 살아낸 인간의 존엄과 생존의 의지를 전세계를 상대로 선보였다. (프랑스 니스지)⁸⁾

同前一部小說〈活着〉一樣，作者余華在〈許三觀賣血記〉中描述了一個小人物的坎坷命運。可以說，在中國當代作家中，余華是遊離於談諧的格調、時代的批判及文學賴以生存的人道主義之間，做得最為遊刃有餘的一個。(比利時 <前途報> 1997年 12月 10日)⁹⁾

전작 『인생』과 마찬가지로 위화는 『허삼관매혈기』에서도 소시민의 불우한 운명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당대문학 작가 가운데서도 위화는 해학적 분위기와 시대적 비판 및 문학이 생존하는 휴머니즘 사이를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넘나드는 최고의 작가라고 할 만 하다. (벨기에 『미레보』 1997. 12. 10)¹⁰⁾

在〈許三觀賣血記〉中，作者講述了一個普通的工人階級通過賣血勉強維持生計的故事。在余華的作品中，我們不難發現小說主人公在面對生活的絕境時，為求繼續生存所表現出來的頑強意志以及在過去中國社會體制中的錯亂。在那種體制下，個體被完全泯滅了。(法國 <世界報> 1998年 1月 13日)¹¹⁾

작가 위화는 『허삼관매혈기』에서 보통의 노동자가 매혈을 통해 힘겹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그의 작품에서는 삶의 고난 앞에서도 생존을 위해 굴하지 않는 주인공의 강인한 의지와 과거 중국사회체제의 혼란한 양상이 동시에 쉽사리 발견된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프랑스 『르몽드』 지 1998. 1. 13)¹²⁾

小說既感傷，又殘忍，余華不斷打磨尖利的筆鋒，竭盡所能地構建他的故事。〈許三觀賣血記〉首次出版后不久，中國媒體就廣泛曝光大量賣血者感染上了艾滋病和肝炎病毒。事實證明，許三觀和他的家人是幸運的。(美國 <華盛

7) 余華 (2010) 『兄弟』，作家出版社

8) 필자의 번역임.

9) 余華 (2010) 『兄弟』，作家出版社

10) 필자의 번역임.

11) 余華 (2010) 『兄弟』，作家出版社

12) 필자의 번역임.

頓郵報> 2003年 11月 2日) 13)

(슬프고 잔인하다. 위화는 시종일관 날카로운 펜끝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그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허삼관매혈기』가 출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언론들은 엄청난 매혈자들이 간염과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대대적으로 폭로했다. 허삼관과 그의 가족은 운이 좋았다. (『워싱턴포스트』 지 2003. 11.2)¹⁴⁾

余華20世紀90年代的小說儘管仍然充滿了痛苦, 卻滲透了一種契夫式的悲憫情緒, 1992年出版的<活着>和1995年出版的<許三觀賣血記>, 包含了20世紀中國社會的集體悲劇, 幫助這位中國頂級作家獲得了應有的國際聲譽。(美國 <時代> 周刊 2003年 11月 9日)¹⁵⁾

90년대에 출간된 위화의 소설엔 여전히 고통이 가득하지만 체호프식 연민의 정서가 배어 있다. 1992년에 출판된 『인생』과 1995년에 출판된 『허삼관매혈기』는 20세기 중국사회의 집단적 비극을 담았다. 이 두 작품으로 중국의 이 정상급 작가는 마땅히 받아야 할 세계적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 (『타임』지 2003 11.9)¹⁶⁾

沒有一個多餘的詞語。在余華感人肺腑的小說<許三觀賣血記>中, 沒有絢爛的情節, 只有一個簡單的故事, 一個民間故事。一個中國家庭忍受貧窮、飢荒以及隨後的文化大革命。這聽起來似乎很嚴峻, 或者很糟糕, 但余華令人驚悚而滑稽的風格使小說避免了感傷主義的情調。小說看似普通, 卻結構巧妙、文字優美, 讓人難以拒絕, 令讀者一唱三嘆、回味無窮。(美國<波士頓環球報> 2003年 12月 21日)¹⁷⁾

군더더기 단어가 하나도 없다.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위화의 소설 『허삼관매혈기』엔 현란한 줄거리가 없다. 가난과 기아 및 문화대혁명을 견뎌내는 중국가정의 서민적인 이야기만 존재할 뿐이다. 이야기가 당혹스럽거나 심각할 것 같지만 전율까지 느껴지는 위화의 익살스런 필치로 인해 작품이 감상주의로 흐르진 않는다. 소설은 평범해 보이지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구성이 정교하고 문장이 유려하다. 독자들은 두고두고 그 여운을 음미하게 될 것이다. (『보스턴글로브』 지 2003. 12.21)¹⁸⁾

13) 余華 (2010) 『兄弟』, 作家出版社

14) 필자의 번역임.

15) 余華 (2010) 『兄弟』, 作家出版社

16) 필자의 번역임.

17) 余華 (2010) 『兄弟』, 作家出版社

상기한 바와 같이 중문본이 작품을 ‘이해’하는 주요 사회적(public) 내러티브는 작가 위화와 원작의 특성에 관한 서구 언론의 찬사 속에서 출현한다. 작가와 작품이 세계적인 인정과 명성을 획득하였다는 내러티브가 기타 텍스트에 비해 진한 글씨체로 강조된 여러 서구 언론의 명칭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문본의 결텍스트가 중국어권 독자를 위해 작품에 관하여 조성하는 이야기는 계속 ‘세계적인 작품’이란 단순한 프레임으로 이어질 뿐이다. 중문본의 결텍스트 구성요소에서 주목할 점은 작가 위화의 중국어판 서문 이외에 작품에 대한 중국 국내의 해석을 독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중문본에서는 독자의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소개, 작품해설, 작품평론 등의 독자적 결텍스트가 부재하다. 대신 작가와 작품에 대해 무수한 호평과 극찬을 쏟아놓는 서구 언론의 목소리만 등장할 뿐이다. 이렇게 해외 주요 언론의 호평에 의지하여 작품을 오롯이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중문본의 외현적 마케팅은 표면적으로 오늘날 출판업계에서 일반화된 결텍스트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 사회의 특수성과 작품 『허삼관매혈기』의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보면 다른 각도의 이면의 해석도 가능하다. ‘세계적인 작품’이란 단순한 프레임은 중문본 결텍스트 요소의 텍스트를 둘러싼, 중국 사회에 보다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메타 내러티브를 반영할 수도 있다. 관방의 통제를 받는 출판 환경이란 메타 내러티브에 부응하기 위하여 출판사가 위화 작품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삼가려는 결텍스트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¹⁹⁾ 실제로 위화의 주요 작품 가운데 본고의 중문본 결텍스트

18) 필자의 번역임.

19) 중국 출판계의 사상표현 자유의 폭이 제한적임은 자명해 보인다.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1950년대 반우파운동, 마오쩌둥(毛澤東)에 대한 역사적 공과문제, 문화대혁명 관련문제, 1989년 6.4 천안문 사태의 역사적 평가 등의 거론과 연구가 금지되어 있다(유세중, 『중국현대문학』 60, 2012: 299). 중국 문단에서 개량식 리얼리즘을 선도하는 엔렌커(閻連科)의 대표작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爲人民服務)』가 2005년 봄, 격월간 문예지 『화청(花城)』 3월호에 발표되자마자 ‘마오쩌둥이 이룩한 혁명의 전통을 희화화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선전부의 긴급 명령에 의해 3만 권에 달하는 책이 전부 회수된 금지조치의 일화는 유명하다(김태성(2008),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252).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체제비판적인 학자인 첸리췌(錢理群) 전 베이징대(北京大) 교수는 2011년, 노동자 파업과 자살, 청소년 문제, 신문보도의 성격 등을 논한 평론

를 출판한 중국의 작가출판사는 2010년, 『형제(兄弟)』와 2011년, 『가랑비 속의 외침(在細雨中呼喊)』를 중국에서 출간하였지만 『허삼관매혈기』와 마찬가지로 모두 해외 언론의 서평에만 의지할 뿐 독자적인 해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결텍스트 요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신성출판사(新星出版社)가 2013년 중국에서 출판한, 위화의 신작 『제칠일(第七日)』에서는 작가 위화가 해외의 저명한 몇몇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짤막한 소개 이외에 그 어떤 결텍스트 요소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소설 『허삼관매혈기』의 중문본 결텍스트 전략도 상술한 바와 같이, 위화의 작품에 대해 독자적인 해설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출판사의 일반적 방침의 연장선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소설 『허삼관매혈기』의 중문본 결텍스트 요소는 작품에 대한 중국 국내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생략한 채 표면적으로 서구 주요 언론의 호평에 의지하여 매출을 진작시키려는, 오늘날 출판업계의 ‘전형적인’ 결텍스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이니 일독을 권한다는 사회적 내러티브가 ‘세계적 작품’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리프레이밍되고 있을 뿐이다. 중문본의 결텍스트 요소는 중국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독자적인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후술할 한역본과 영역본의 결텍스트 요소가 중문본과 확연히 다른 내러티브를 구축하며 독자적으로 심도 있는 해석의 방향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4.2 한역본 결텍스트 내러티브의 프레임

분석대상으로 삼는 한역본의 결텍스트 요소는 공간적으로 가장 많은 편폭을 차지하며 본문텍스트 뒤에 위치한 작품해설 텍스트와 뒷표지 텍스트에 한정한다.

집을 출간할 때 글들을 제대로 발표할 수 없었다. 그의 글은 “고위층”같은 단어나 “사회위기의 대폭발이 우릴 향해 가까이 오고 있다” 같은 문장들이 삭제된 후 발표되었다. 첸 교수는 이에 대해 출판사의 안전과 글을 발표하기 위해 부득불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피력한 바 있다(유세중, 『중국현대문학』 60, 2012: 311).

이러한 문단 상황에서 상술한 위화의 작품들이 비록 작품의 배경을 ‘후경화’시키고 있지만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의 중국 정부의 공식적 과오나 공산당 간부의 부정부패, 사회양극화, 개혁개방 이후 만연된 배금주의 및 사회적 약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철거민 문제 등을 다루고 있음은 중국 출판사의 위화 작품에 대한 결텍스트 내러티브 프레임 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문학평론가 우찬제는 작품해설에서 먼저 줄거리를 소개하고 특정 본문텍스트를 인용하여 해설한 후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덧붙인다. 작품해설의 제목은 “삶, 그 연민의 서사체”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의 예시처럼 “삶의 양식(糧食), 양식(良識), 양식(樣式)”의 틀로 구성되어 있다.

“일락이가 대장장이 방씨네 아들 머리를 박살냈을 때 피를 팔러 갔었지. 그 임똥똥이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피를 팔았고 식구들이 오십칠 일간 죽만 마셨다고 또 피를 팔았고, 앞으로 또 팔겠다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고생을 어떻게 견디나..... 이 고생은 언제야 끝이 나려나.”²⁰⁾

허삼관은 솜저고리의 주머니에 사발을 넣은 채 한 손으로 소금을 입에 털어 넣으며 길을 걸었다. 그러다 강변에 있는 계단에 이르러 강물을 두 사발 떠 마시고 또다시 소금을 먹으며 길을 걸었다. 그날 오후 허삼관은 바이리의 병원에서 피를 팔고 나와, 병원 맞은 편 반점에 가서 돼지간볶음과 황주 두 냇을 먹으려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두 손으로 자기 몸을 꼭 껴안은 채 길 한가운데서 그저 덜덜 떨고 있었다. 두 다리가 광풍에 떠는 마른 가지처럼 격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곧 부러질 것만 같았다. 이윽고 몸이 휘청하더니 허삼관은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²¹⁾

양식(糧食)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양식(良識)을 추구하며 나름대로 진실한 삶의 양식(樣式)을 꾸려오고자 했던 한기춘 민중이 자기 삶의 양식(樣式)의 종말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비애여서, 그에 대한 연민의 정조는 그만큼 각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핏빛으로 얼룩진 허삼관의 눈물에서 우리는 매우 고단한 삶의 역정의 결정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삶이란 한 편의 서사체란 결국 연민의 이야기 위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²²⁾

위와 같이 한역본이 작품을 이해하는 주요 사회적(public) 내러티브는 양식이 부족하여 목숨을 담보로 매혈을 하며 간신히 살아가면서도 양심을 지키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주인공 허삼관의 따뜻한 삶의 따뜻한 방식으로 정리해

20) 최용만 옮김 (2014) 『허삼관매혈기』, 과주: 푸른숲. (余華, 許三觀賣血記).

21) ibid.

22) ibid.

볼 수 있다. 양식(糧食)은 식량으로, 양식(良識)은 양심으로, 양식(樣式)은 방식으로 호환이 가능하다. 작품해설에서 발췌된, 허삼관이 큰아들 일락이가 박살낸 방씨네 아들 머리를 치료하고 간염에 걸린 일락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혈을 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그의 따뜻한 마음과 양심을 엿볼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다. 이 일련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관계성을 띠며 선택적으로 전유되어 상기한 내러티브를 구축한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산다는 것’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면서 비극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 허삼관의 따스한 마음과 진실된 양심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인공의 따뜻한 삶의 방식에 공감과 연민의 정서로 다가가는 한역본의 작품 해석 내러티브는 휴머니즘이란 메타 내러티브와 연결되어 다음과 같이 뒷표지 텍스트에서 아버지로서의 부정과 따뜻한 인간애라는 프레임으로 프레이밍 되어 재차 강화된다.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위화
그가 세상 모든 아버지에게 건네는 따뜻한 황주 한 잔

아내를 위해, 아들을 위해
피를 팔아 살아가는 한 남자의 웃음과 눈물

“설령 목숨을 파는 거라 해도 난 피를 팔아야 합니다.”
“저야 내일모레면 쉼이니 세상 사는 재미는 다 누려봤죠. 이제 죽더라도 후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은 이제 겨우 스물한 살이라 사는 맛도 모르고 장가도 못 들어봤으니 사람 노릇 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 지금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지.....”

삶의 고단함과 슬픔을 능청스럽게 껴안는 익살과 해학
그 뒤에 자리한 인간에 대한 속 깊은 애정

“일락아, 오늘 내가 한 말 꼭 기억해둬라.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 난 나중에 네게 나한테 뭘 해줄 거란 기대 다. 안 한다. 그냥 내가 늙어서 죽을 때, 그저 널 키운 걸 생각해서 가슴이 좀 북받치고, 눈물 몇 방울 흘려주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²³⁾

23) *ibid.*

상기한 뒷표지 텍스트의 최대 편폭은 따스하고 정 많은 허삼관의 인성에 할애되고 있다. 첫 번째로 인용된 본문텍스트는 허삼관이 간염에 걸린 큰아들 일락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를 팔러가는 여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표출한 속마음의 내용이다. 이러한 토로 다음에는 그가 병원에서 피를 팔고 나온 후 받은 돈을 겨울바람 속에서 정성스럽게 꼭꼭 싸맨 후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는 아버지로서 강인한 책임감을 짊어진 허삼관이 진심을 다해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눈물겨운 부정(父情)이 표출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용된 본문텍스트는 허삼관이 큰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하소용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큰아들 일락이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내용에서 발췌된 것이다. 허삼관은 큰아들 일락이가 아내 허옥란과 이웃주민 하소용의 생물학적 자식임을 알고 있고 하소용과 심하게 싸운 적이 있음에도 일락이에게 하소용의 집을 찾아가 그의 집 옥상에서 그의 이름을 세 번 외쳐 혼을 불러오라고 부탁한다. 당시 트럭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던 하소용에게 아들이 옥상으로 올라가 이름을 외치고 혼을 불러오는 의식은 민간에서 통용되던, 마지막 희망이었다. 따라서 뒷표지 텍스트에 나타난 본문텍스트는 연민과 공감을 잃지 않은 허삼관의 따뜻하고 선량한 마음씨가 그대로 반영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기한 작품해설과 뒷표지 텍스트를 정리해보면 한역본의 결텍스트는 곤궁한 처지에서도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허삼관의 삶의 방식이란 내러티브를 아버지로서의 부정과 따스한 인간애라는 프레임으로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역본의 결텍스트를 통한 작품해석 방식은 허삼관 캐릭터 요소를 선택적으로 전유한 내러티브를 아버지로서의 헌신적인 부정과 여기에서 이어지는 휴머니즘으로 리프레이밍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후술할 영역본의 사회비판적 해석방식과 극명히 대비된다.

4.3 영역본 결텍스트 내러티브의 프레임

분석대상이 되는 영역본의 결텍스트 요소는 공간적으로 가장 많은 편폭을 차지하며 본문텍스트 뒤에 위치한 역자후기와 뒷표지 텍스트에 한정한다.

영역본의 역자후기는 번역가로서의 소회가 아닌 평론가로서의 작가와 작품

에 대한 해설로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중국현대문학 교수이기도 한 번역가 조네스(Andrew F. Jones)는 역자후기에서 북미권 독자를 위해 작가 위화와 작품 『허삼관매혈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과 평론을 선보인다.

역자후기는 조네스가 2000년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호텔에서 우연히 위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이후 느꼈던 충격부터 시작한다. 위화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개혁개방이후 맨발의 치과의사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탈바꿈한, 성공한 중국인의 표상으로 포장되어 등장했다. 그가 받은 충격은 또한 급격히 자본주의화 되어버린 베이징의 밤거리 네온사인의 휘황찬란한 풍경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다음 단락에서는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이후 시장주의가 팽배해진 중국문단의 맥락에서 위화의 대중작가로의 변신 및 소설 『허삼관매혈기』의 탄생이 탐색된다. 또한 유년시절 위화의 독서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여러 작가들에 대한 소개와 중국의 해외문학 수용상황 및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중국문단의 발전흐름도 서술된다.

영역본의 작품해설에서 주목할 부분은 ‘루쉰(魯迅)’이라는 메타 내러티브이다. 영역본의 주요 결핵스트 요소인 역자후기에서는 “중국현대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루쉰의 리얼리즘 문학사조를 다음과 같이 위화의 작품해석에 연결시키고 있다. 루쉰은 중국이 근대화를 철저히 고민했던 20세기 초반, 왜곡된 유교로 대표되는 봉건윤리와 노예근성에 짓눌린 중국인의 국민성을 통렬히 비판했던 근대화시대의 대표적 지식인으로서 『광인일기(狂人日記)』, 『아큐정전(阿Q正傳)』 등의 고전을 남긴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문학운동을 시작한지 약 1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루쉰문학’은 여전히 ‘동아시아 공통의 모던클래식’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후지쇼조 2014: 279) 루쉰이란 작가는 ‘깨어있는 지성과 날카로운 비판’의 대명사로서 동아시아의 사상 연구에 여전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Like Lu Xun, Yu Hua returns obsessively to the violent spectacles of China's tumultuous modern history. As in Lu Xun's fiction, the incalculable sufferings of poverty, war, and revolution come to life for the reader in Yu Hua's fiction as a sort of 'theater of cruelty' visited upon

the bodies of his characters. And as with Lu Xun, it is the operating theater and the hospital that more often than not serve as a symbolic site of cruelty, official ineptitude, and state malpractice.²⁴⁾

루쉰과 마찬가지로 위화 역시 무질서한 중국현대사의 폭력적인 광경에 대한 집착으로 돌아온다. 루쉰의 소설이 가난, 전쟁, 혁명 같은 술한 고난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듯이 위화의 소설도 그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잔혹극장’이 된다. 루쉰의 경우처럼 위화의 작품도 종종 관의 부정부패, 국가적 과오 및 잔혹성을 상징하는 극장이자 병원으로 기능하는 것이다.²⁵⁾

상기한 단락은 루쉰이 중국인의 우둔함과 비도덕성이라는 정신적 병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봉을 메스처럼 휘둘렀듯이 위화도 예전의 실험성 강한 창작 기법에서 부조리한 사회현실을 고발하는 리얼리즘 사조로 전향했음을 나타낸다. 소설 『허삼관매혈기』의 출현과 특성을 루쉰이 대표하는 비판적 리얼리즘이란 메타 내러티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품 자체의 서사보다 작품의 시대적 의미에 주목하는 영역본의 결핵스트 요소는 또한 다음과 같이 사회성이 짙은 질문을 연속해서 던진다.

The disturbing revelation of official corruption and mismanagement with system, as well as the widespread contamination of blood reserves with the HIV virus, came to light only several years after Yu Hua's novel was published. Yu Hua's noble, in this sense, seems eerily prescient.²⁶⁾

관리들의 부정부패, 국가시스템의 오류 및 HIV 바이러스에 대량 오염된 혈액 사태 등 사회 부조리에 대한 폭로는 『허삼관매혈기』가 출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년 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위화의 소설은 이런 의미에서 섬뜩할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다.²⁷⁾

Few Chinese readers would miss the way in which the story also engages with the wrenching social and economic dislocations of contemporary Chinese people.²⁸⁾

24) Jones, Andrew F (2003)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New York: Anchor.

25) 필자의 번역임.

26) Jones, Andrew F (2003)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New York: Anchor.

27) 필자의 번역임.

소설이 동시대 중국인의 삶을 일그러지게 만든 사회경제적 혼란을 다루고 있음을 놓치는 중국 독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²⁹⁾

Xu Sanguan's career as blood merchant poses a series of disturbing and politically pointed questions. Where does capital come from? What if the only capital you have is your own body? What does it mean to sell your lifeblood for a living? And What happens when there is no longer a market for your 'labor'?³⁰⁾

허삼관이 매혈 상인으로서 하는 일은 여러 사회정치적 질문을 던진다. 자본은 어디서 나오는가? 가진 자본이 몸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기 위해 목숨과도 같은 피를 파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³¹⁾

상기한 바와 같이 영역본의 결텍스트는 북미권 독자를 위해 『허삼관매혈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한역본의 그것과 다른 시선을 투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인공의 따뜻한 인간애에 초점을 맞추는 한역본의 내러티브에서 매혈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하나의 소품처럼 후경화되어 있다. 매혈이 발생한 사회적 배경이 허삼관 가족의 수난사 차원의 시각에서 삶의 형식으로만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영역본의 주요 결텍스트 요소는 매혈이 반영하는 사회적 혼란상이라는 사회적(public) 내러티브를 비판적 리얼리즘이란 메타 내러티브 속에 위치시키며 보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적 방향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인다. 즉,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발발한 대약진운동과 대기근 및 문화대혁명 등 1950년대부터 1970년대의 정치적 재난 속에서 발생한 매혈 세대가 재난이 종식되었음에도 계속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시각 속에서 중국이란 현실 속 매혈의 본질적인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다.

한역본 결텍스트의 경우, 작품해석을 위해 주로 허삼관 캐릭터와 휴머니즘이란 인간애를 선택적으로 전유했지만 영역본의 경우에는 주로 사회적 의식의 전경화로 요약해 볼 수 있는 내러티브 구성요소들이 작품이해를 위해 전유되었

28) Jones, Andrew F (2003)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New York: Anchor.

29) 필자의 번역임.

30) Jones, Andrew F (2003)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New York: Anchor.

31) 필자의 번역임.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역본의 경우, 매혈은 삶에 본질적으로 내장된 고난 같은 운명의 형식으로서 사회적 재난과 인과적 관계를 맺지 못했다. 하지만 영역본의 경우, 매혈의 배경 및 의미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하는 인과적 플롯이란 내러티브 속성으로 인해 『허삼관매혈기』에 대해 보다 사회비판적인 이야기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이한 선택적 전유와 인과적 플롯의 내러티브 속성으로 인해 상이한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이것이 다시 독자들에게 대한 상이한 해석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영역본의 경우 위화의 작품을 비판적 리얼리즘이란 메타 내러티브에서 논의하면서 “사회부조리”, “사회경제적 혼란”, “사회정치적 질문” 등의 내러티브 구성요소를 통해 비인간적이고 사회불능적인 매혈세대가 반영하는 사회적 혼란상의 주요 내러티브를 작품 해석을 위해 전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매혈을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여 작품의 사회고발적 특성을 강조하는 영역본 역자후기의 내러티브는 뒷표지 텍스트에서 재차 명확한 프레이밍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강화된다.

One of the last decade's ten most influential books in China, this internationally acclaimed novel by one of the mainland's most important contemporary writers provides an unflinching portrait of life under Chairman Mao.

A cart-pusher in a silk mill, Xu Sanguan augments his meager salary with regular visits to the local blood chief. As he struggles to provide for his wife and three sons, his visits become dangerously frequent. And when he discovers that his favorite son was actually born of a liaison between his wife and a neighbor, Xu Sanguan is shattered, while his wife is publicly scorned as a prostitute. In the face of such soul-destroying indignities, Xu Sanguan ultimately finds strength in the blood ties of his family. A noble of rare emotional intensity, raw descriptions of place and time, and clear-eyed compassion,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offers us a stunning tapestry of human life.³²⁾

소설 『허삼관매혈기』는 세계적인 찬사와 함께 지난 십년 간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 소설은 중국당대문

32) Jones, Andrew F (2003)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New York: Anchor.

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위화의 작품으로 마오쩌둥시대 삶의 초상을 곳곳하게 그려낸다.

생사공장에서 운반공으로 일하는 허삼관은 정기적으로 지방 혈투를 찾아가 매혈을 하면서 부족한 월급을 보충한다. 아내와 세 아들의 생계를 힘겹게 책임지면서 그의 매혈도 위험할 정도로 찾아진다. 그러던 도중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 일락이가 아내 허옥란과 이웃주민 하소용의 사생아였음을 알게 된 후 허삼관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그의 아내도 과거에 기녀 노릇을 했다는 모략으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다. 그러나 허삼관은 영혼을 파괴하는 술한 모욕 속에서도 결국 가족이라는 혈연적 유대 안에서 살아갈 힘을 찾아낸다. 강렬한 감정, 중국이란 시공간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묘사, 통찰력 있는 연민으로 가득한 소설 『허삼관매혈기』는 삶의 놀랍도록 다채로운 일면을 보여주는 수작이다.³³⁾

상기한 뒷표지 텍스트는 주로 원작의 줄거리와 시대적 배경을 서술하는 동시에 원작에 대한 감상평을 덧붙이고 있다. 작품의 줄거리와 시대적 배경을 분명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와 원작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로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주목되는 점은 “모택동시대의 초상”이나 “중국이란 시공간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묘사”같은 프레임이 이 작품이 중국사회의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회적 시각의 내러티브를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이 중국의 특정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영역본의 결텍스트 요소는 전반적으로 매혈을 야기한 사회적 배경과 매혈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상이라는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전유한 후 사회적 의식의 전경화라는 내러티브를 구축하여 이를 다시 중국 사회를 생생하게 반영한 작품이라는 프레임으로 프레임링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허삼관으로 대표되는 소시민이 매혈로 인해 직면한 고난과 역경은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것이다.

5. 토론 및 결론

본고는 결텍스트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 사회학적 시각의 내러티브 개념 및

33) 필자의 번역임.

프레이밍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번역에 따른 문학작품의 해석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번역학 내에서 내러티브 이론의 도입과 발전은 여러 번역현상과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논제를 부각시켰고 번역을 통한 문학텍스트의 수용에서도 각기 다른 해석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던 것이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상기한 시각에서 본고는 번역을 통해 재구성되는 내러티브 개념을 문학적 해석에 적용하고 유용한 해석의 틀로 작용하는 결텍스트 장치의 내러티브를 분석함으로써 번역과 해석의 논제를 다루었다. 본고에서 적용한 문학적 해석 개념은 상기한 대로 “작품의 정서와 특성을 가려내는 선택적 작업의 초보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문학평론의 작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오한 해석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작품을 소개하고 작품의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결텍스트의 내러티브를 작품에 대한 해석의 틀로 삼았다. 각 문화권의 출판 관계자들이 문학번역을 수행하면서 “해당 문화권의 독자를 위해 작품에 관해 주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작품에 대한 초보적 해석으로 설정한 것이다. 중점은 중국당대문학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소설 『허삼관매혈기』의 해석 양상이 중문본, 한역본, 영역본의 결텍스트 요소에서 제각기 프레이밍되는 것에 관한 세밀한 기술과 문학번역에서 결텍스트의 새로운 기능 탐색에 두었다.

『허삼관매혈기』의 중문본, 한역본, 영역본의 결텍스트 요소는 완전히 상이한 내러티브의 프레이밍 현상을 보여주었다. 중문본의 결텍스트 요소는 서구 유력 언론의 명칭을 빌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찬사라는 사회적(public)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세계적 명성의 훌륭한 작품이라는 프레임으로 리프레이밍하였다. 해외 주요 언론의 호평에 의지하는 중문본의 이와 같은 외현적 마케팅 구도는 표면적으로 오늘날 출판업계에 일반화된 전형적인 결텍스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방의 통제를 받는 출판환경이란 중국 사회의 메타 내러티브를 감안해 볼 때 작품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삼가려는 출판사 방침의 일환으로도 추론해볼 수 있다. 한역본의 경우, 주인공 허삼관의 캐릭터가 선택적으로 전유되어 고난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따뜻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삶의 방식이란 내러티브가 아버지로서의 부정 및 따스한 인간애라는 프레임으로 리프레이밍되었다. 영역본의 결텍스트는 작품의 주요 서사가 되는 매혈이 반영하는 사회적 혼란상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중국이란 사회적 현실 속에서 매

혈의 본질적인 의미를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있었다. 사회적 의식을 전경화시킨 영역본의 이러한 내러티브는 “중국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묘사”라는 키워드가 시사하듯 중국사회를 생생하게 대변하는 사실주의적 작품이라는 프레임으로 재차 강화되었다.

상기한 문학작품의 결텍스트 내러티브의 변형 양상은 번역을 통해 문화권마다 달라지는 문학작품의 다원적 해석을 암시할 수 있다. 동일한 문학작품일 지라도 번역을 통해 상이한 언어적, 문화적 접촉을 거치게 되면 번역행위자의 사회문화적 동기나 목표독자의 기대지평 등의 여러 요소들로 인해 각각의 문화권에서 독자들에게 제시되는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리프레이밍된 해석의 방향은 나아가 독자들의 작품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독자들은 결텍스트에 제시된 특정 프레임 안에서 작품을 해석하도록 고무되어 전반적으로 문화권마다 달라지는 번역문학작품의 다원적 해석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고의 『허삼관매혈기』 사례는 결텍스트 요소가 번역을 통한 문학작품의 내러티브 프레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학번역에서 결텍스트 요소는 문화권에 따라 독자들에게 상이한 본문텍스트의 해석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원작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 확립”에 중점을 두는 원본 중심의 결텍스트 선행연구가 번역본은 물론이고 번역을 거치지 않는 원작의 수용상황에서도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소설 『허삼관매혈기』의 중문본은 작품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생략한 채 오로지 해외언론의 서평에 의지하면서 작품의 외현적 마케팅에 치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결텍스트의 ‘주요 기능’을 “원작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 구현”으로 판단한 원본 중심의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가 크다.

본고는 내러티브 개념과 결텍스트의 결합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번역과 문학적 해석이란 논제를 실증적 사례 연구를 통해 고찰해보는 동시에 문학번역에 있어서 결텍스트라는 제도적 장치의 기능도 함께 탐색해보았다. 다만 본고의 사례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번역을 통한 문학작품의 다원적 해석양상의 본질을 번역이라는 다문화의 프레임과 텍스트의 특성을 동적이고 대화주의적으로 규정하는 후기구조주의의 환원적 시각에서만 다룬 것은 아쉬운 점으로 여겨진다. 문학작품이 원작이나 번역을 통해 다원적으로 해석되

고 수용되는 현상의 이면을 보다 심층적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의 각도에서 세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향후 후속연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기영 (2013)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본 국제뉴스 현지화 현상 - 한미 FTA 관련뉴스 사례 분석」, 『번역학연구』 14(2): 39-63.
- 김순미 (2013) 「번역 텍스트 내의 정치적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 CNN의 ‘아랍의 봄’ 보도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2): 65-100.
- 김태성 옮김 (2008)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閻連科, 2005, 爲人民服務).
- 김하나 (2014) 「중국 근대 번역의 두 가지 방향 - 『신청년』과 린수의 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1): 85-110.
- 김혜리, 엄혜영 옮김 (2008) 『독자, 텍스트, 시 - 문학작품의 상호교통이론』, 서울: 한국문화사.(Louise M, Rosenblatt, 2003,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 백계문 옮김 (2014) 『루쉰』, 파주: 한울아카데미. (藤井省三, 2011, 魯迅 -東アジアを生きる文學).
- 심혜영 (2006) 「1990년대 위화 소설의 휴머니즘과 미학」, 『중국현대문학』 39: 355-389.
- 이옥연 (2009)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의 중국문화』,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유경철 (2008) 「운명과 이에 대면한 위화의 인물들 -위화 소설의 변화 과정에 관한 일 고찰」, 『중국현대문학』 46: 93-128.
- 유세중 (2012) 「루쉰과 첸리첸」, 『중국현대문학』 60: 282-314.
- 윤영도 (2007) 「물의 이미지를 통해 본 위화의 소설세계」, 『오늘의 문예비평』 67: 147-163.
- 양선희 (2016. 10. 26) 「취미 삼아 낙태하는 여성은 없다」, 『중앙일보』, 2016년 10월 28일 검색.
- 최용만 옮김 (2014) 『허삼관매혈기』, 파주: 푸른숲. (余華, 許三觀賣血記).

- 지영래, 박선희 (2010)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위상 -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247-276.
- 전성욱 (2015) 「위화 소설의 한국 수용에 관하여」, 『중국현대문학』 73: 159-188.
- 한미선 (2013) 「풍자소설 번역에서의 결텍스트 기능 및 특징 - 『걸리버 여행기』와 『동물농장』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4): 199-222.
- 홍석표 (2009) 『중국현대문학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London,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2009) 'Reframing conflict in translation' in Baker Mona (ed.) *Translation studies*, London, New York: Routledge, 189-208.
- Bassnett, Susan (2014) *Transl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 Boéri, Julie (2008) 'A narrative account of the Babels vs Naumann controversy: competing perspectives on activism in conference interpreting', *The Translator* 14(1): 21-50.
- Esperanca, Bielsa (2014) 'Translation and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Literatur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ception of Roberto Bolano's Work in Spanish and English', *The Translator* 19(2): 157-181.
- Genett, Gerard (198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 Lefevere, André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New York: Routledge.
- Hou, Pingping (2013) 'Paratexts in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in Pellatt Valerie(ed.) *Text, Extratext, Metatext and Paratext in Translation*, Cambridge Scholars, 33-48.
- Jones, Andrew F (2003)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NewYork: Anchor.
- Kung, SzuWen (2013) 'Paratext, an alternative in boundary crossing: A complementary approach to translation analysis' in Pellatt Valerie (ed.) *Text, Extratext, Metatext and Paratext in Translation*, Cambridge Scholars, 49-68.
- Summers, Caroline (2013) 'What remains: The Institutional Reframing of Authorship' in Pellatt Valerie (ed.) *Text, Extratext, Metatext and*

- Paratext in Translation*, Cambridge Scholars, 9-32.
- Tahir-Gürçaglar, Sehnaz (2002) 'What texts Don't Tell: The Uses of Paratexts in Translation Research' in Hermans Theo (ed.) *Crosscultural Transgressions*, St. Jerome, 44-60.
- Tymoczko, Maria (2007) *Enlarging translation, Empowering translator*, Manchester, New York: St. Jerome.
- Urpo, Kovala (1996) 'Translations, Paratextual Mediation and Ideological Closure', *Target* 8(2): 119-147.
- 蔡志全 (2013) 「副文本理論及其在翻譯研究中的現狀述評」, 『海外英語』 2013年 3期.
- 葛校琴 (2015) 「副文本翻譯中的譯本制作者控制-以譯本『當中國統治世界』為例」, 『山東外語教學』 2015年 2期.
- 胡莉莉 (2011) 「魯訊文學譯作的副文本探析」, 『北京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1年 3期.
- 劉勇 (2015) 『中國現當代文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黃艷群 (2015) 「翻譯副文本研究的新進展:翻譯中的文本、外文本、元文本和副文本評價」, 『外語藝術教育研究』 2015年 1期.
- 李小婷 (2013) 「我心目中的當代文學經典-余華的『許三觀賣血記』」, 『青春歲月』 2013年 2期.
- 宋劍華 (2012) 「『許三觀賣血記』- 荒誕而真實的苦難敘事」, 『齊魯學刊』 2012年 2期.
- 肖麗 (2011) 「副文本之于翻譯研究的意義」, 『上海翻譯』 2011年 4期.
- 余華 (2010) 『兄弟』, 作家出版社.
- 余華 (2011) 『在細雨中呼喊』, 作家出版社.
- 余華 (2012) 『許三觀賣血記』, 作家出版社.
- 余華 (2013) 『第七日』, 新星出版社.
- 張玲 (2013) 「Translation Peripheries: Paratextual Elements in Translation 述評-翻譯研究的副文本視角」, 『上海翻譯』 2013年 2期.
- 鄭瑋 (2011) 「副文本研究-翻譯研究中不可忽視的一環」, 『杭州電子科技大學學報』 2011年 2期.

[Abstract]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The paratextual reframing of narrative in translated literary texts

Lee, Ji-Yo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velopments and applying of social narrative theories in translation studies in recent years (Baker 2006; Boéri 2008; Summers 2013) have led to the issue of different interpretations about texts in the social contexts of a different culture through translation.

Particularly in the reception of literary texts across cultures, the changing patterns of interpretation also emerges frequently from source and translated texts.

Drawing from this insight, understanding interpretations as a narrative that is reconstructed in translation, this article aims to the issue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cross cultures by analyzing paratexts, which act as powerful interpretive frames. The focus is on the description about how the interpretation of a Chinese novel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written by one of the most internationally successful Chinese writers Yu Hwa, who has already acquired emblematic status in Chinese contemporary literature, has been reconstructed in Korean translation and English translation by analyzing their narratives in paratexts and on exploration on the role of the paratexts in the studies of translated literary works.

The shifts in narratives of the paratexts in Korean translation and English translation of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demonstrate the vast differences of the interpretations of a literary work through translation. And it also shows that paratexts play a crucial role in reframing of the narratives of a

literary work through translation.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s example not only affirms that translation of a literary work can bring about very different interpretations across cultures, but also suggests that in the case of translated literature, paratexts, as the interpretive frame of the text, can be a key site that represents a very vast interpretations of the text by the contact of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 Key Words: literary translation, paratext, narrative theory, interpretation

이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박사수료

zhiying2003@hanmail.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화번역, 담화분석, 번역이론, 중국당대문학

논문투고일: 2016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6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7일